

독자적 분야로 자리잡은 '마을신앙' 연구

종래의 무속 위주서 확대 양상... 다양한 각론서도 출간

종래의 민간신앙 연구에서 마을신앙은 무속(巫俗)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다. 그동안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지음, 집문당)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지음, 계명대 출판부) 「민간신앙」(민속학회 펴냄, 교문사) 등 의미있는 학술서들이 간행됐다고는 하나 그 안에서 마을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고, 그나마 단편적·개별적인 논문으로 다루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활발히 진행돼왔던 무속연구는 근래 들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고유의 기층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이와 넓이를 더해감에 따라, 이제 '공동체 문화'로서의 마을신앙이 미개척분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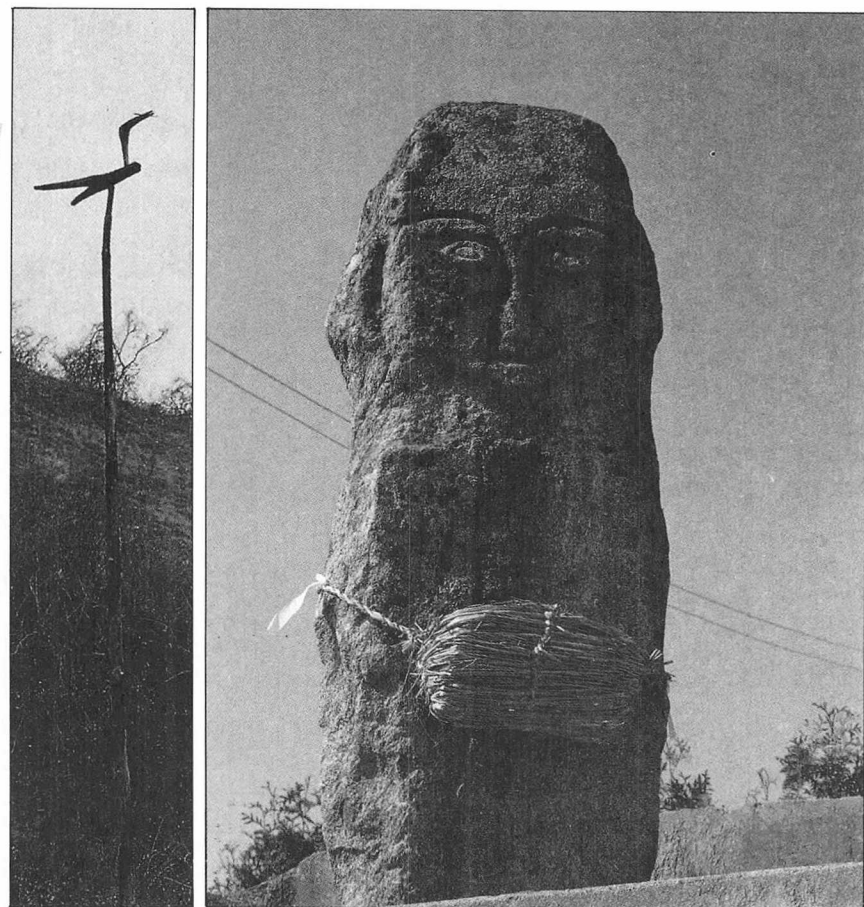
그 결과물로 다양한 출판물들이 속속 간행돼 나오고 있다. '장승사전'이라 부를 만한 역작 「벽수와 장승」(김두하 지음, 집문당)이 출간된 이래 「장승제」와 「풍물굿」(김수남 사진, 평민사), 「조선땅 마을지킴이」(황현만 사진, 열화당) 등이 잇달아 간행됐으며, 「장승과 벽수」 「숫대」 「서낭당」 등의 책들도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로 나왔다. 또 지난 연말에는 「마을숲」(김학범·장동수 지음, 열화당)이, 최근에는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지음, 웅진)와 「마을로 간 미륵」(주강현 지음, 대원정사)이 나란히 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초의 '마을신앙 개설서' 나와

먼저 '한국의 생활과 풍습' 시리즈(웅진)의 네번째 단행본으로 출간된 「마을신앙의 사회사」는 마을신앙이라는 단일주제를 총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설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을신앙의 대상(마을지킴이)은 상당신(上堂神)과 하당신(下堂神)으로 구성된다. 마을의 주산에 모셔진 산신(山神)인 상당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단순한 자연신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곳의 역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신의 성격을 띤다. 마을 주민들은 일년중 약속된 날짜와 시간(거개는 정월 대표름과 시월 상달)에 이 신을 모신다. 몸과 마음이 정갈한 성인 남자를 제관으로 선출해 단출하고 경건한 제의를 치른다.

반면 하당신이란 마을 입구에 모셔진 탐, 장승, 숫대(집대), 수구(水口)막이 선돌, 미륵 등 거리신들을 말하는데, 마을에 따라 이들 중 하나 또는 두셋씩을 나름대로 조합해 모신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의 오리 숫대(왼쪽)와 대전시 동구 비룡동의 지혜대장군(오른쪽).

다. 이들은 마을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한편 수구를 막고 허한 방위를 보호하며, 간혹 이정표로서의 구실을 담당하기도 한다. 범접하기 힘든 산신과는 달리 일상의 자잘한 소원들을 허물없이 의탁할 수 있는 하위(下位)의 신들인데, 그 제의의 성격 역시 산신제와는 판이하다. 신의 종류에 따라 '장승제' '탐제' '집대제' '미륵제' 등으로 이름붙여지는 이 '거리제(마을굿)'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울리는 '해방의 장' '놀이의 장'이다.

「마을신앙의 사회사」는 이 산신제과 거리제라는 두 개의 축을 기본으로 마을신앙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기능 등을 체계화 갖추어 소개하고 있다. 저자 이필영 교수(한남대)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집필과정이 "깎아놓은 철도를 달리는 기관차의 형편이 아니라 침묵을 설치하고 자갈을 깔고 레일을 놓는" 형편과 같았다고 쓰고 있다. 그간 마을신앙에 대한 체계적 입문서가 전무했던 탓에 겪은 고충을 토로한 것인데, 바로 이 책이야말로 최초의 입

문서로서 동료와 후학들을 위한 철로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마을지킴이' 별로 출간된 책들 다수 선배

「마을신앙의 사회사」가 개설서로서 총괄적으로 마을신앙을 다뤘다면, 하나의 마을지킴이를 단일 주제로 선정해 저술한 책들도 다양하게 출간됐다.

「마을신앙의 사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마을로 간 미륵」은 하당신의 한 형태로 모셔져온 전국의 마을미륵들(총 300여 기에 이른다)을 일일이 답사연구한 기록. 제주도 바다에서 건너온 은진미륵에서부터 비결이 있다는 동불암 마애불, 벽라리 미륵보살, 궁에 미륵불, 두만리 미륵당에 이르기까지 저자 주강현씨가 발로 뛰어다니며 채집한 자료와 직접 찍은 사진들이 현장감 있게 수록돼 있다.

미륵불의 현현(顯現)을 갈망했던 펄박받는 백성들의 신앙이 '부처'인 미륵을 '마을'로 내려오게 한 것인데, 이들 '마을미륵'들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상과는 달리 대부분 순박하

고 못생긴 얼굴들이다. 목 잘린 불상, 발 갈다가 호미 끝에 걸려 나온 불상, 불상은커녕 단순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바위까지 백성들은 미륵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친근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땅에서 솟구친 미륵, 물에 떠내려온 미륵, 걸어나오는 산 등 미륵에 관한 갖가지 전설을 집대성한 이 책은 '마을미륵 현장답사기'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기행문으로서의 '읽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다.

한편 벽수, 범수, 장승, 장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하당신 '장승'을 다룬 대표적인 책으로 「벽수와 장승」이 있다. 평생을 장승 연구에 바친 김두하씨의 이 저서는 장승의 기원, 변천, 제작과정,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음은 물론, 전국에 흩어진 거의 모든 장승의 사진을 해설과 함께 수록한 대작이다. 이와 함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로 나온 「장승과 벽수」에는 윤열수, 송봉화, 강현구, 이태완씨의 사진과 함께 역시 김두하씨의 해설이 실려 있으며, 열화당의 「한국 기층문화의 탐구」 시리즈로 나온 「장승」에는 황현만씨의 사진들과

씩어지지 않은 우리 민중의 생활상 발굴

민속과 풍습에 각별한 애정 지닌 주강현씨

그가 쓴 모든 책은 우리네 삶과 생활이야기, 마을이야기, 흙의 이야기 마을신앙의 이야기로 묶여 있다.



민중들의 생활은 단순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 왕조의 실록은 단지 당시 엘리트의 역사일 뿐, 거기에서 민중들의 생활상을 구성구석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래서 씹어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란 쉽지 않다. 현장 답사가 있어야 하고, 현장답사에서 얻은 현장 자료와 함께 고문헌을 이것저것 뒤져 해석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민속학자 주강현씨(40, 경희대 강사)가 「마을로 간 미륵(대원정사)을 내놓으면서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는 점도 그의 폭넓은 발품을 발판삼아 민중의 씹어지지 않은 역사를 오늘에 다시 살려놓는다는 작지 않은 업적때문이다. 그의 저서와 공저 목록을 살펴보면 주강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는 「민속과 굿」「노동과 굿」「굿의 사회사」 등 굿과 관련된 우리 선조들의 종교관을 줄기차게 책으로 묶어 펴내는 동시에 민속과 풍습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조선의 민속놀이」「조선민족 풍습」「한국사-조선후기 민속편」 등을 펴냈다. 이번에 내놓은 「마을로 간 미륵」 또한 그의 관심사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

주강현씨가 글을 쓰기 위해서 처음 작업을 할 때 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자료였다. 힘있는 자들이 민(民)의 생활과 풍습에 관하여 별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첫째 이유 외에, 외래 식민세력의 지배로 그나마 민중 자신의 생동감 넘치는 생활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역사는 정사에 씹어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씹어지지 않은 민중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인 힘이 바로 민중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모든 책은 우리네 삶과 생활이야기, 마을이야기, 마을에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 흙의 이야기, 마을신앙의 이야기로 묶여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민중생활사라 할 만하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80년대 초부터 사진기를 들러메고 전국토를 누비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민속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방향을 전환해 민속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대학원을 국문과에 다니면서부터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 기록은 여전히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사라진 것이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큰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는 또 북한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민속학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 민속학사」「북한의 사회」를 이미 펴낸 바 있고, 지난해에는 그 완결편이랄 수 있는 「북한의 민중생활풍습」을 내놓아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남한 것과 함께 북한 것을 중요시하며 천착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관심사가 더욱 집요하게 집중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통일을 막연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생각들이 팽배한데, 그런 접근은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는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통일의 길을 찾고자 한다.

이제 불혹의 나이이지만 그에게는 욕심이 많다. 앞으로 10년간 50권의 저서를 갖겠다는 각오가 그것이다. 그는 또 어린이들이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한 방법으로 현재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보림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 시리즈 「술거나라」를 기획하는 일도 그가 중히 여기는 일이다. —이성수 기자

**‘공동체문화’로서의 마을신앙이
미개척분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마을신앙이라는 단일주제를 총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설서에서부터
미륵이나 장승, 솟대와 서낭당 등
개별적인 단일주제에 대한
저술서들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적 삶’의
토대로서 마을신앙에 대한
복원의 의미가 있다.**

함께 이종철, 박태순, 이태호, 유홍달씨의 글이 수록돼 있다.

또 지난 94년 연말 ‘한국전통부락의 당숲과 수구(水口)막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마을숲」도 눈길을 끈다. 단군신화의 ‘신단수’를 시원적 형태로 볼 수 있는 마을숲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잇는 다리로서 마을신앙의 대상이 돼왔다. 이 책은 그 ‘문화요체’로서의 마을숲의 기원, 문화, 분포 등을 고찰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그 경관적 개념과 조정 차원에서의 마을숲 이용방법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밖에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의 「솟대」(송봉화 사진·이필영 글)와 「서낭당」(송봉화 사진·이종철 박호원 글)도 마을지킴이들의 양상을 담백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은 ‘우주나무’인 솟대들의 다양한 사진과 해설이 수록된 「솟대」는 우리 고유의 미적 감각이 얼마나 빼어났던가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마을굿의 생생한 현장 담은 사진집

아울러 마을굿의 현장을 사진 위주로 담은 책들도 다수 나와 있다. 「장승」에 이어 ‘한국기충문화의 탐구’ 시리즈로 나온 「조선(朝鮮) 땅 마을지킴이」는 300컷에 이르는 컬러 사진에 상세한 주석을 곁들여 이땅의 마을지킴이와 마을굿을 ‘화려하게’ 조명한다. 부안 돌모산의 ‘진대 하나씩 옷입히기’에서부터 태안 안면읍 ‘붕기 풍어제’에 이르기까지 마을굿의 진지하고도 흥겨운 현장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각종 입석과 마성황당(馬城隍堂) 등 독특한 마을지킴이들의 모습도 다채롭게 담겨 있으며, 「마을로 간 미륵」의 저자인

주강현씨의 논문 ‘마을지킴이와 마을굿-그 날줄과 씨줄’과 장정룡씨의 ‘마을지킴이의 유형과 실제’도 함께 게재되어 이해를 돕는다.

평민사에서 기획한 ‘한국인의 놀이와 제의’ 시리즈의 사진집 「풍물굿」과 「장승제」 역시 마을신앙의 현장을 보여주는 책들이다. 마을굿을 ‘놀이의 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풍물굿의 모습을 담은 「풍물굿」에는 장좌리 당제, 필봉농악, 평택농악의 주요장면들이 수록돼 있다. 또 「장승제」에는 엄미리 산신제, 마티 탐신제, 발치리 거리제의 사진들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열화당에서 출간된 ‘한국의 굿’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다. 총 20권으로 완간된 이 시리즈 가운데 ‘마을굿’을 다룬 책은 「제주도 영등굿」「강사리 범굿」「양주 경사굿과 소놀이굿」「거제도 별신굿」「강릉 단오굿」 등이다. 길게는 보름 가까이 진행되는 이 대규모의 거리제는 마을에서 뽑은 제관이 기를 잡고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건장한 해방의 공간이다. 마을의 안녕을 바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기원하는 질박한 주민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담겨 있는 책들이다.

사라져가는 것의 아름다움

현대화의 물결에 떠밀린 옛 기충민중들의 신앙은 급격한 쇠퇴의 길에 서 있다. 그중에서도 마을신앙은 ‘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가장 주요한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마을의 소멸과 운명을 같이해왔다. 그 ‘사라져가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복원해 내야만 한다는 주장은 호소력을 가지는데, 단순히 마을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건강함과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가파른 역사를 건너오면서 우리가 일궈놓아 놓쳐버린 과거와의 ‘끈’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녹슨 거울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것, 바로 우리들 자신의 얼굴이 ‘마을신앙’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이 아닌 현재적 삶으로서의 마을신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 십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관련 학자들은 말한다. 마을신앙이 독자적 연구분야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책들이 활기있게 출간되는 이즈음의 현상은 그 시간의 유한함 때문에 더욱 반갑고 귀중한 일이다. —한 강 기자